

# 2006년은 ‘과학문화 혁신의 해’ 로

오늘의 지식사회는 바로 과학기술시대를 의미한다. 2005년 12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국가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과학적 기초를 확산시키고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시대의 선진국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글로벌 수준과 규범에 맞도록 체질을 혁신해나 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과학과 과학적 사고가 이 시대는 물론 국가의 모든 영역을 주도해 나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과학계의 주요 현안들에 비춰볼 때, 새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문화의 글로벌화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연구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므로 연구문화를 글로벌 수준과 규범에 맞게 혁신시켜, 이를 바탕으로 연구력을 안정적으로 높여가며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구 활동에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규범은 반드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연구원 관리, 홍보, 특허 등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히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정부, 언론이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스스로 성찰하며 우리의 연구 문화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둘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튼튼한 기초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터 드러커는 ‘Innovator의 조건’에서 “지식사회에서 최우선과제는 모든 사람에게 수준 높은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필수조건이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것은 원시적인 사고이며, 21세기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과 과학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Consilience(통섭), the Unity of Knowledge’라는 저서에서 오늘의 시대는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과의 통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제 학문간 경계를 뛰어 넘

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은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2004년 4월 하버드 대학은 교육과정 개선안에서 문과 학생들에게도 이과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수학, 과학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계의 연대활동 강화이다. 우리 정부나 사회는 아직도 과학기술계가 제기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수학·과학 등 기초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들도 정확히 인식하여야 대책 마련도 더욱 새롭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개별 학회의 노력보다는 시안별로 관련 학회와 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과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가 다양한 연대를 구성하여 정부와 사회가 과학계와 인식을 같이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수학회는 ‘이제는 수학과 산업이다’라고 선언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수학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혁신해나가고 있다. 2005년은 대한수학회가 금융계와 공동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수학이 산학협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수학 관련 7개 학회들이 총연합회를 구성해 초·중·고 단계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학 발전의 철학과 비전을 세우는데 협력해나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대만, 일본, 중국의 수학회들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수학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동북아시아 연구군(regional mass)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수학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수학은 초일류의 경쟁력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돌파구가 됨을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2006년을 과학문화 혁신의 해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주변은 매우 빠르게 변화 발전해나가고 있다. 10년, 20년 후의 국가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과학에 관련된 문화가 글로벌 환경과 경쟁에 적합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㉔



글 | 민경찬 \_ 대한수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